



▲콜로라도에 레이저 산업 붐을 일으킨 한유봉 박사

첨단 과학 및 레이저 기술력 선두기업

록키마운틴인스트루먼트(RMI)와 레이저마킹테크놀로지(LMT)사(대표 한유봉)는 첨단광학 및 레이저 기술의 선구자적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RMI사는 원래 1957년 설립된 광학기기 생산업체. 한유봉 박사는 지난 1983년 부도직전의 이 회사를 인수해 생산품을 재래식 광학기기에서 과감히 첨단 광학기기로 바꾸고 레이저기기를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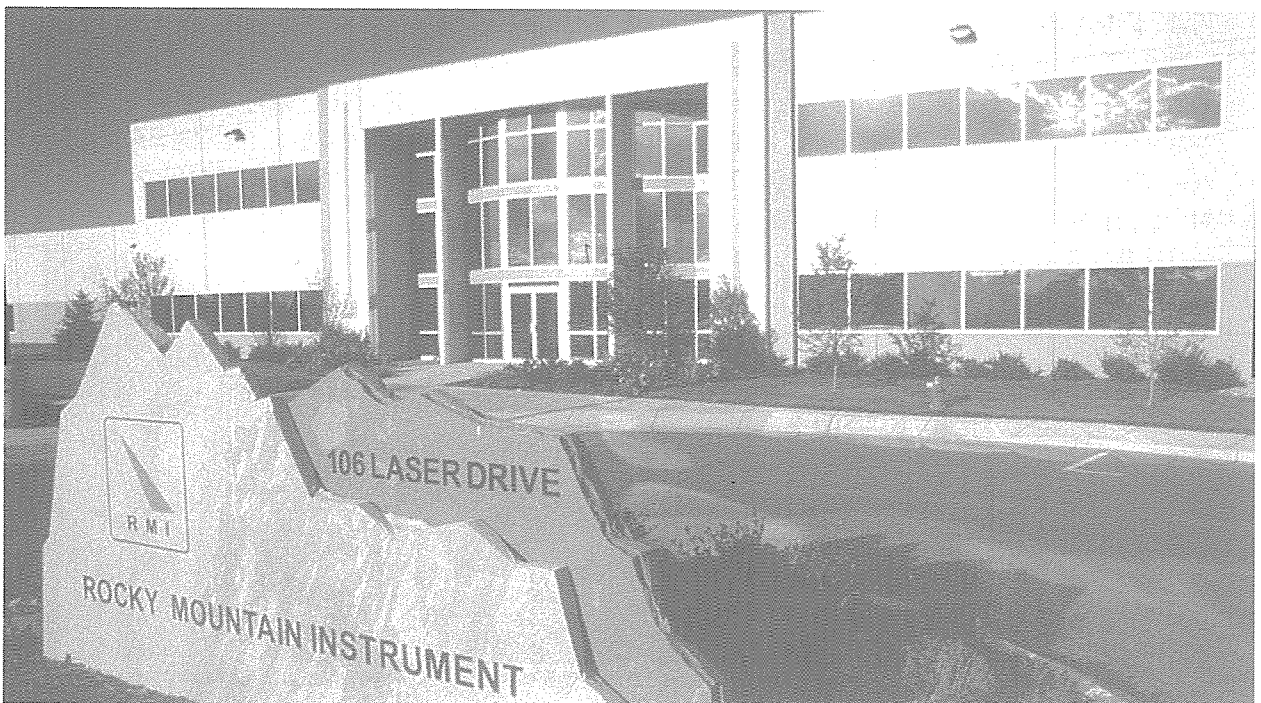
RMI사의 현재 생산품은 렌즈, 프리즘, 거울, 컬러필터 등 광학기기와 코팅제품,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기기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이중 야시경, 적외선 망원경 등 군용 첨단광학기기는 세

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 국방부에 14년째 납품하고 있으며 세계각지의 방위산업체인 휴즈, 맥도넬더글라스, 보잉, 노드롭사 등과도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매출구조도 군용 첨단광학기기가 전체의 30%이고 나머지는 최근 몇 년새 역점사업으로 육성한 레이저기기가 차지하고 있다.

레이저기기 분야에선 안과 수술용으로 널리 알려진 엑시머 라식기기가 포함돼 있으며 절단, 용접 등 산업용 기기도 주력품이다.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전세계 5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LMT사는 지난 1996년 창업한 회사로 레이저 마킹(표시)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레이저 마킹이란 다이오드, 탄



▲광학기기 및 레이저 생산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RMI사 전경



소, ND-YGA 등 각기 파장이 다른 레이저의 특성을 이용해 물건에 조각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레이저 광선을 쏘아 물건 등 피사체에 글이나 그림 등을 새기는 일이다.

레이저마킹은 정밀한데다 유리안에도 그림을 새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기념품이나 사진 등 일상생활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다 향후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 박사는 이 두 회사의 제품을 모두 주문자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함으로써 항상 고객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MI사 김영수 매니저는 "품질관리와 고객수요에 맞춘 OEM방식이 우리회사의 성공비결"이라며 "제품 제안에서부터 물품구매,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기는 사장의 경영스타일도 성공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으로 승부

콜로라도 볼더카운티 라파에트시에 가면 레이저 드라

이브라는 거리가 있다. 이 거리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인인 한유봉 박사(58)다. 라파에트시가 레이저 산업 활성화에 공헌한 한 박사의 뜻을 기려 이곳에 그의 이름을 딴 거리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한 박사는 현재 레이저 드라이브 106번지에서 록키마운틴인스트루먼트(RMI)와 레이저마킹테크놀로지(LMT) 등 2개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83년 종업원 6명에 부도직전이던 RMI사를 인수하고 LMT사를 새로 창업해 종업원 210명에 연간 7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일궈냈다. 특히 광학기기 및 레이저 생산업체인 RMI사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걸프전당시 미군 첨단장비의 눈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세계적 경제지인 포춘지는 걸프전 직후인 지난 1992년 한 박사를 표지모델로 선정, 미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소수민족 기업가의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어느 일요일. 쉬는 날인데도 필자의 급한 연락

걸/프/전/이/야/기 조준경, 야시경 모두 RMI사 제품

RMI사는 걸프전으로 일약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등장했다.

지난 1991년 새해벽두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시작된 걸프전은 미국의 CNN방송을 타고 전세계 인방에 생생하게 전달됐다. 첨단무기의 전시장이 된 걸프전에서는 패트리엇미사일, 토우 대전차미사일, 아파치헬기, 세계최강의 M1A1 탱크에 장착된 레이저 조준경, 야시경 등이 목표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중시키는 정교함으로 찬탄을 자아내게 했다.

바로 이 장비들의 눈에 해당하는 광학부품이 RMI사 것이었다. CNN의 생중계를 타고 RMI사의 첨단장비들이 진가를 발휘한 셈이다.

걸프전에 등장한 RMI사의 레이저 광학기기는 스텔스 전폭기를 비롯해 이라크 스커드미사일 킬러인 패트리엇미사일의 유도장치에서 주 기능을 담당했다. 또 아파치헬기와 M1A1 탱크의 레이저 조준경

은 물론 CNN의 생생한 보도도 이 회사의 적외선망원경 렌즈에 의해 촬영됐다.

RMI사는 걸프전때에만 1천만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한유봉 사장은 "걸프전은 우리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돼 한편으론 가슴이 아팠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걸프전 당시 진가를 발휘한 첨단 광학제품의 제작 원리인 레이저를 광학기기에 응용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이고 있다.

에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회사에 나온 한 박사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쳐났다. 중년의 나이에도 그에게선 20대 젊은이를 대할때의 활력이 느껴졌다. 일에 대한 열정이 활력을 불어넣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표출되는 듯 했다.

● 언제 어떤 계기로 미국에 오게 됐고 광산업에 뛰어들게 됐는가.

1961년 경북고를 졸업하고 유학차 미국에 건너와 웨스트버지니아주 웨슬리언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71년 미주리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곧바로 형님과 함께 뉴멕시코주에서 광학부품 생산업체를 창업해 운영하다 거래관계를 맺고있던 RMI사를 인수하게 됐다.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레이저 등 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 광학장비 회사이던 RMI사를 인수한 뒤 바로 레이저분야를 사업에 추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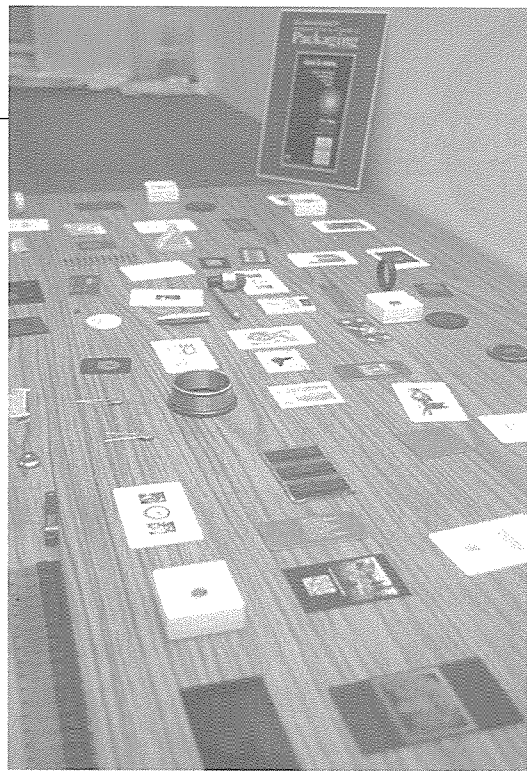
● 세계적 기업으로 일궈냈는데 그 비결은.

통상 사람들은 기업성공의 비결로 기술력을 첫 손에 꼽는다. 하지만 나는 기술력에 앞서 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열쇠다. 그 다음이 기술력이다. 첨단 선두를 달린다는 것은 항상 힘들지만 자질있는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수성(守城)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30여년간 한 길에 매진해 온 것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요인이다. 앞으로도 레이저와 광학장비 분야에 전념할 방침이다.

● 미국 광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기술·인력·사회구조 등 성공 3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직도 기회의 땅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진다. 미 정부가 벤처창업에 자금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단적이 예다. 여기에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의 용기를 복돋아



▼ 레이저 마킹 장면과 생산제품들



주는 사회분위기가 어우러져 사업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형성되다보니 기술과 인력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 한국 광산업관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책사업인 만큼 한국 정부가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년대계를 세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에 비해 늦었다고 조급하게 하다가간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선 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행·재정적 지원 방안,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원천기술 개발 등이 뒤따라야 한다. 한가지 덧붙이면 초기단계라 경험있는 리더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리더가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취재/장필수 광주일보기자〉